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

오늘은 인권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인권이라는 용어는 사실 성서나 신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용어는 칸트를 비롯한 몇몇 철학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교회가 그대로 수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한 용어는 “인간 존엄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교회가 철학자들이 새로이 만들어낸 인권이라는 용어와의 충돌이 없으니 교회가 인권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당시 유럽은 이를 두고 “교회가 드디어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인권’이라는 용어보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용어를 더욱 선호합니다. ‘인권’이 철학자들이 만든 용어라서 아니라 “인간 존엄성”이라는 말이 더욱 피부에 와닿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인간은 그 안에 신성(하느님 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 존엄성은 감히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존엄성은 인간 생명에 대한 가치뿐 아니라 인간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를 비롯하여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가능성(능력의 가능성, 성장의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설령 상대가 나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그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건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이건, 그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가 성인이건 어린아이인 할지라도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형제는 인간이 가진 이 모든 가능성을 단번에 차단시켜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 존엄성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성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선배와 후배 사제 사이에, 사제와 교우들 사이에서, 교우와 교우들 사이에 서로 존중과 배려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 존중과 배려를 사랑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좋을 것이라 여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존중과 배려(사랑)를 체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했습니다. 먼저 사랑받고 존중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 감히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재영 바실리오 신부 | 천사의집 원장

주일 진레

제 1 독 서	이사 11,1-10
화 답 송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제 2 독 서	로마 15,4-9
복 음	마태 3,1-12

한 가지 부족한 것

‘백주홍인면 황금흑사심(白酒紅人面 黃金黑土心)’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얼굴색이 붉어지는 것처럼, 선비가 돈맛을 알면 마음이 검은다는 뜻이다. 대낮에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사람에게 주인이 물었다. “어떻게 밤도 아닌데, 낮에 이런 도둑질을 하느냐?”고 했더니, “돈에 미치면 밤낮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돈이나 재물에 빠지면, 부모와 형제뿐만 아니라 하느님도 몰라보게 된다. 때로는 살인도 하고 형제간의 우애와 친구 사이의 의리도 상해 서로 원수가 되고, 나중에는 하느님과의 멀어지게 된다.

마태 19,16-26, 마르 10,17-27, 루카 18,18-27에서도 언급되는 ‘어떤 사람’은 권력 있는 부자였다. 그가 예수님께 와 무릎을 꿇고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고 이르셨다. 그러자 재물이 많았던 그는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이어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마르 10,25)라고 하셨다. 낙타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큰 동물이고, 바늘귀는 성문이나 대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문이었다. 즉 몸집이 큰 낙타가 작은 문을 드나들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다.

누구나 하느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마태 6,24 참조)고 했다. 그래서 부자들은 대체로 하느님보다 재물을 더 섬긴다. 또 돈으로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예제 28,5는 “재산을 늘리고는 그 재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경고했다.

부자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세관장 자케오(Zacchaeus)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회령한 것은 네 곱절로 갚겠다(루카 19,1-10 참조)고 했다. 그리고 최고 의회 의원 니코데모(Nicodemus)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예수님의 장례 준비까지 했다(요한 3장 참조). 또 아리마태아(Arimathea) 출신 요셉이라는 부자는 난처한 상황이 있음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소유의 새 무덤에 모셨고(마태 27,57-61 참조), 한 무명의 부자는 예수님의 최후만찬(最後晚餐)을 준비할 큰 이 층 방을 내주기도 했다(마르 14,12-16 참조).

그래서 잠언 30,8-9은 이렇게 말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냐?’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하고 저의 하느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돈이 힘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상향(理想郷)이다. 문제는 부자 그 자체가 아니다. 어떻게 재산을 모았으며, 또 어떻게 재산을 활용하면서 부자로 사느냐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능력껏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면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불신자가 되는 부자가 아니고, 재산을 하느님 뜻에 맞게 잘 활용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기술(奇術)이고, 돈을 잘 쓰는 것은 예술(藝術)이라고 한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12월이다.

모두가 열심히 잘 살아왔겠지만, 부족한 것도 있었을 것이다. 그중에서 무엇이 가장 부족했는가를 더듬어보고, 남은 기간에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도록 하자.

하느님과 대화한 어느 날

윤혜정 글라라 동화작가/ 가톨릭문인회

나는 초보운전자다. 원래 운전을 좋아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삼여 년 전 큰아이가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부터 운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운전의 공포증은 생각보다 심해서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 매일 아침 마른침을 삼키며 엄습해오는 불안, 초조, 긴장들과 맞닥뜨릴 때마다 정신을 부여잡아야 했다. 내가 하루에 운전하는 시간은 고작 해야 모두 이십여 분이다. 그 짧은 시간들이 매일 조금씩 쌓이니 어느새 운전도 할 만한 것이 되었다.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참 신기한 일이다. 요즘도 나는 안전을 절대 신조로 삼으며 초심으로 간직한다.

9월의 말일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가톨릭문인회 연간지 원고 마감일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삼일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당선되고 처음 내는 원고인데 마감일 지나서 내면 막내 신참으로서 경우 없이 큰 실례가 될 것이고 자칫 문집에 못 실을 수도 있겠다 싶으니 마음이 급해졌다. 어찌 됐건 마감일 안에는 내야 했다.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다 갑자기 마감일 생각이 스치자 심장이 똥똥거리며 조급함이 밀려왔다. 정지신호에도 안 걸리고 싶어 조바심이 났다. 순간 내가 왜 이러지 싶었다. 나도 모르게 하느님께 물었다.

“하느님, 제가 오늘 왜 이러죠?”

하느님이 급한 원고 때문에 그러니 잠시 잊으라 하신다. 마음이 약간 가라앉는 것 같다. 평소에도 옆 차선의 출근 차량들의 속도는 으레 나보다 빠르다. 그날은 그것조차 신경 쓰였다.

“아, 옆 차선 차가 빨리 간다고 왜 저도 덩달아 빨리 가고 있을까요?”

하느님이 평상시대로 다른 차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하라 하신다.

“네,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은 심호흡을 한 번 하라 하신다. 하느님 말씀대로 하니 마음이 한결 진정되었다. 아이를 학교 앞에 내려주고 되돌아오는 길에도 나는 하느님과 계속 대화를 했다.

“하느님 저 차가 차선을 바꾸려고 해요.”

하느님은 그 차를 주시하며 신경 쓰라 하신다. 내가 속도를 좀 늦추자 그 차가 차선을 바꾸었다.

“휴우, 됐어요. 이렇게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운전하니 훨씬 힘이 되는데요. 누가 옆에 있는 것 같아 든든해요. 근데 하느님은 이른 아침부터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계속 같이 있어주시네요.”

하느님은 항상 옆에 있었는데 몰랐나 하시며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에 있어도 항상 곁에 있다고 하신다.

“히힃,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부르는 것 같아 죄송해요.”

하느님이 웃으신다. 나도 따라 웃는다. 이렇게 나는 하느님과 함께 안정된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맑은 아침이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운전 길에 따스한 햇살이 비친다.

“하느님, 하느님이 곁에 계시니 제가 이렇게 살아요. 덕분에입니다. 하느님.”

교구 레지아 2023년도 활동 계획 발표회



교구 레지아(담당: 여인석 베드로 신부, 단장: 백광렬 도미니코)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2023년 활동 계획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백광렬 단장은 평의회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여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마산 레지아가 더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전하였다. 여인석 신부는 레지아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고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비에 관심을 가지자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의 주례로 주일미사 봉헌과 특강을 통하여 기도 생활에서는 남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시간과 열정을 바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전하였다.

최우선적 필요

김용태 마태오 신부/ 대전교구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방영한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다. 아마존의 자연과 원주민들의 삶이 자본가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던 방송인데 그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아마존 원주민들이 티셔츠 하나를 얻기 위해 원숭이를 사냥하는 모습이다. 본래 벌거벗은 채로 생활하는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티셔츠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물건인데 그 불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 불필요한 사냥과 살육을 저지르는 것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아마존의 세계에 자본주의가 어떻게 파고들어 원주민들의 삶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황량하게 만들어가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 장면 외에도 다큐멘터리 안에는 원주민들의 원숭이 사냥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대 자본 세력의 끔찍스런 '아마존 사냥'에 대한 기록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착잡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아마존에서만 일어날까? 아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일상처럼 반복되는 비극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1차적 필요와 2차적 필요 그리고 3차적 필요라는 것이 있다. 1차적 필요는 '생존'과 관련된 것이고 2차적 필요는 '편리'와 관련된 것이며 3차적 필요는 '패션, 맛, 기호'와 관련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통해 1차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2차적, 3차적 필요들을 충족시킨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1차적 필요를 충족시킬 때보다 2차적, 3차적 필요를 충족시킬 때가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된다. 편리와 패션과 맛과 기호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차를 타고 목적지에 가야 하는 1차적 필요의 값은 대중교통비 몇만 원 혹은 몇천 원이면 되지만 여기에 편리와 패션과 맛과 기호라는 2차적, 3차적 필요가 더해지면 그 값이 몇천만 원 혹은 몇억 원도 될 수 있는 거다. 고가의 해외 명차들을 상상해 보라! 어쨌든 돈만 많으면 2차적, 3차적 필요에 몇억이 아니라 몇십억이라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맘대로 한단데 누가 뭐라 할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에게서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는 게 있다. 즉 나의 2차적 필요나 3차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1차적 필요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 배 불리겠다고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노조를 탄압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 조금 편하게 살겠다고 이 땅의 아름다운 산하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송전탑을 세우고 핵발전소를 지어서는 안 된다. 자전거 탈 사람도 없는 곳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사람도 별로 없는 곳에 공원을 만든답시고 평생 농사지으면서 자식들 가르치고 먹이며 살아온 농민들을 쫓아내고 농토를 갈아엎어버려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아파트와 상가를 짓겠다며 판잣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가난한 나라에 보내면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곡식들을 육식용 가축의 사료로 소진시켜서는 안 되고 육식용 가축의 대량 사육을 위해 거대한 삼림을 불태워서도 안 된다. 부자들의 몸치장을 위해 수많은 여우와 밍크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고 수많은 아이들을 일당 50센트에 죽음의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내몰아서도 안 된다. 다른 이들에게 주어진다면 병원비가 되고 집세가 되고 등록금이 될 수 있는 돈을 그저 금고 속에만 쌓아두는 것으로 보람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면 우리 삶에는 모든 필요에 앞서는 ‘최우선적 필요’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즉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지상에서의 생존이라는 1차적 필요보다 더 우선한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최우선적 필요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다.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마태 19,16)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십계명을 잘 지키라는 가르침과 함께 다음과 같이 이르신다.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마태 19,21) 즉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우선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최후의 심판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과,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34-36,40) 나의 2차적, 3차적 필요들을 참아가면서 1차적 필요도 채우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 우리의 최우선적 필요는 그런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아마존의 눈물’, 더 나아가 ‘지구의 눈물’ 또한 그렇게 닦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복음에 등장하는 부자의 어리석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그 어리석음이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함에 있다. 그저 허물어진 공간에 썩어 없어질 곡식과 재물만을 채우는 데 급급하고 가난한 이웃의 1차적 필요마저 외면한 채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며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향한 최우선적 필요도 채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어리석음이라니(루카 12,16-21; 16,19-31 참조)!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녕 “필요한 것은 한 가지”(루카 10,42) 바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느님 닮은 사랑’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다.

출처 : 월간 생활성서



교구장 서리 동정

대림특강

일시: 12월 6일(화) 20:00/ 장소: 월영성당
일시: 12월 8일(목) 20:00/ 장소: 가음동성당

교구/본당

광주가톨릭대학교 기숙생 겨울방학

일시: 12월 10일(토)

가톨릭문학 신인상 시상식 및 가톨릭문화회 총회, 미사

일시: 12월 10일(토) 10:00/ 장소: 교구청

교구 성경사목부 성경 교육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거제, 통영
대상: 말씀 봉사가 가능하신 분
신청: 12월 24일(토)까지(면담 후 봉사자 활동)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6, 010·3567·4810

위원회/기관/단체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2월 기도모임

일시: 12월 5일(월) 14:00~15:20-성체조배, 미사
(주례: 정운호 신부, 회의/ 장소: 호계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교구 봉사자
문의: 회장 010·3903·8234

마산장애인복지관 후원자, 자원봉사자 감사행사

일시: 12월 10일(토) 13:00~17:00
장소: 쏘카카페(의창구 평산로185번길 48 2층)
대상: 마산장애인복지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복지관과 인연이 있는 모든분들

기타

2023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11월 14일(월)~23년 2월 10일(금)
내용: 가톨릭신학 전반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문의: 02·745·8339/ 우편접수 가능

예수회센터 겨울특강-동영상 강의(1월 개강, 각 6주 과정)

내용: 신약성경과 영성생활-치유에 대한 오해와
성서학적 진실
· 구약성경 아카데미-신명기 강독
· 의식(양심)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 칼 융의 심리유형론과 MBTI-영성적 접근
· 욕망!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門)
· 가톨릭 사회교리의 원리와 핵심 이슈들
· 율법의 영성-일상을 살아가는 영성과
겸손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12월 11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23년 2월 25일(토)~26일(주일)
23년 3월 4일(토)~5일(주일)
3박 4일- 12월 15일(목)~18일(주일)
23년 1월 6일(금)~9일(월)
8박 9일- 12월 26일(월)~23년 1월 3일(화)
23년 1월 25일(수)~2월 2일(목)-신학성
40일: 12월 10일(토)~23년 1월 18일(수)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수도전통에 따른 레시오디비나 (성도)

일시: 12월 17일(토) 10:00~17:00
장소: 부산본도명상의집
준비물: 성경/ 참가비: 3만 원
문의: 권 벨라렛타 010·3271·0766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돌평화순례 피정
연말연시: 12월 30일~23년 1월 2일
눈꽃산행: 23년 1월 5일~7일/ 1월 27일~29일/
2월 4일~6일/ 2월 12일~14일/
2월 18일~21일/ 2월 24일~26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이시들 자연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일시: 12월 31일~23년 1월 2일(한라산눈꽃피정)/
23년 1월 7일~9일/ 1월 13일~15일/ 1월 28일
~30일/ 2월 3일~5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02·773·1455, 064·796·4182

분더칼리지 캐나다 겨울영어캠프

기간: 12월~23년 2월 말
(주 단위 등록 및 연장 가능)
내용: 밴쿠버 명문사립 스쿨링/ 진로유학 멘토링
대상: 초4~고2
문의: 1577·5158/ 카톡: 분더에듀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캠프

일시: 23년 1월 6일(금)~8일(주일) 2박 3일
장소: 양업고등학교/ 회비: 15만 원
접수: 12월 26일(월) 10:00
방법: 양업고 홈페이지 팝업창
문의: 043·260·5076

감사합니다

가톨릭문화원장 박유진(바오로, 인천교구) 신부님
이 '예매권을 제공해 주셔서 "청소년군"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영화 <탄생>을 볼 수 있었
습니다.
제공해 주신 박유진 신부님 감사합니다.

교구청 직원 모집

사목국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모집: 1명
접수: 12월 9일(금)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 추천서, 보유 자격증 사본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우 51727)
문의: 사무처 055·249·7016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피정

일시: 12월 31일(토) 16:00~23년 1월 1일(주일)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피정 및 송년미사(이청준 신부),
송년파티, 해맞이행사, 신년 대축일미사
신청: 60객실(1~3인실), 선착순 마감
▶백신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함
준비물: 세면도구(수건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문의: 055·221·1891, 010·7542·9631

강윤철 요한 보스코 신부 가톨릭평화방송 TV
'마음을 채우는 가톨릭콘서트 심' 출연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일곱 가지 주제 묵상 글
▶방송 시간: 12월 16일(금) 15:00/
12월 18일(주일) 15:00/ 12월 22일(목) 20:00

복신동본당 제15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회장: 강진열(발렌티노)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장명오(명학다미야노)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최귀정(실비아)
총무: 박정오(레오)
기획관리분과위원장: 강재영(사도요한)
복음화분과위원장: 박인숙(루치아)
노인분과위원장: 최문자(벨라지아)
홍보분과위원장: 김맹기(실바노)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이두경(미카엘)
전례분과위원장: 강명주(스테파니아)
구역분과위원장: 안쌍덕(소화테레사)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조은희(소피아)
시설관리분과위원장: 이성환(클라우디오)
청소년분과위원장: 최종현(바오로)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주례	문의
교구	12월 5일(월) 19:00	중앙동성당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길라 5,25)	차광호 파스칼 신부(용원분당 주임)		010·5072·5612
청년	매주 (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상시	원하는 곳	010·6608·3217(김종관 미카엘 신부)	ofmkvocation@gmail.com

동우 건축 인테리어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및 화장실 시공 정직한 시공 / 가성비 뛰어난 시공 비용 일단 부담 없이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강동주 (세례자 요한) 010.5053.5393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제주 3박 4일·전국 2박 3일 성지순례 제주 7곳 각 지역 항공출발 35만원 베트남 성지순례 3박 5일-115만원 전국 167곳 수원,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전주, 마산 2박 3일-28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성악/기초발성 전문 성가, 가곡, 입시, 그룹레슨 운영 상남동 소재 김민형 요셉 010-5110-303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9

허미경 글라라(하대동본당)



하대동본당 자매님들과 레지오 pr. 친목회 겸 남해 은점공소 순례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은점, 미조, 영신, 북천, 삼장, 옥종공소 순으로 6곳을 순례하였습니다.

순례길잡이 책을 발간해 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밥상도 남이 차려준 밥상이 맛있지만, 딱하니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길잡이 책이 이렇게 소중한 고맙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길잡이 책을 편찬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히 주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기원드리오며,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좀 더 빛나는 우리의 신앙심 고취를 위해 서로서로 분발하지 않으면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없겠구나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 생각하니... 우리들의 자리에서 묵묵히 잘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저의 아픈 마음이 잘 정리되도록 깊은 소망 이루어 주시길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10

지영순 안젤라(상평동본당)

저는 성당에 다닌 지 17여 년이 되었지만, 이렇게 공소 순례는 처음이었습니다.

가끔 타 지역 성지순례는 한 번씩 다녀왔지만, 우리 지역의 공소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공소가 태동한 지 100년이 넘는 곳도 많고, 우리 가톨릭교회의 신앙 선조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골짜기에 숨어서 기도를 했는가 싶어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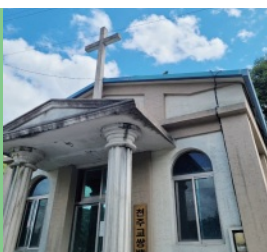
저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했는지 공소 순례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공소 순례를 통해서 성경도 자주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레지오 단원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순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분들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직 순례 못하신 분들 꼭 한 번 다녀보세요.



● 공소 순례밴드 가입방법: 네이버 검색창 '마산교구 공소순례밴드' 입력 -> 가입

▶ 공소 순례를 완주하신 분들은 책자를 12월 17일(토)까지 교구 평협 사무실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 16길 27 5층 평협

하늘에 별이 되어...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한국 공동체는 겨우 20명 남짓한 작은 공동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을 다 합친다 해도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 자매가 하늘에 별이 되어 떠났다. 그것도 6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서.

떠나고 나니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던 자매인지 절절히 깨닫는다. 이는 떠남이 남겨놓은 빈자리 때문만이 아니다. 적은 수에 또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자매의 삶이 그토록 내어주는 아름다운 삶이었음을 이제야 알았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언젠가 그가 한 말이다.

“나는 죽을 때 하얀 재가 될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 어떤 힘도 더는 남지 않을 때까지 항상 삶에 충실할 거예요.”

하늘의 별이 되기 2~3주 전에 “저는 아쉬운 것이 없어요. 받을 사랑 다 받았고 저도 내어줄 것 다 주었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이제 떠나도 돼요.” 그렇게 자매는 다 내어놓고 떠났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커다란 숙제 하나를 던져 놓고서 말이다.

자매의 삶을 다시 바라보면서 읽게 된 복음 구절은 나에게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했다.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 대화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루카 10,25-28)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살 것이라고 하신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만이 살아있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목숨을 사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듯했다. 자매는 얼마나 충만하게 살았던가!

자매가 충만히 살아낸 그 삶은 우리 가슴속에서 별처럼 빛을 내며 손짓한다.

“이렇게 사는 거야!”

자매가 시장에 가면 다 시들은 채소를 사 왔다. 할머니가 길가에 앉아 팔고 있는데 아무도 사 가지 않아 그랬단다. 왜 불쌍한 사람은 그 자매의 눈에 그리 잘 뵈까? 누가 무엇을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한다. 아니 부탁하기도 전에 알아차린다.

다 내어주고 기운이 다할 때까지 일하는 자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어리석음을 알량한 속된 똑똑함으로 ‘사람이 어찌 저리 균형이 없을까?’ 판단하고 야단쳤는데 이제야 알아듣는다. 자매가 택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죽은 목숨으로 산 사람이 어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영원한 사랑 안에 들어가려면 말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요한 12,25)